

부산항 협력업체 안전망 넓힌다

BPA, 상생협력사업 본격 추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협력사 8개 기업 참여
1억5000만원 규모 사업비 투입
위험성평가 컨설팅·교육 지원
1200명 대상 위험요인 조사 확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

부산항만공사(BPA)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협력사 8개 기업에 도합 1억5000만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BPA 사업장 내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협력업체 중심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올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BPA는 이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참여했고, 2차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공사의 협력업체인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아스타아이에스, 부산예부선추진협회, 부산신항보안공사, 에이엠피코 6개사와 지역중소기업인 CM코리아, KJ조선 2개사가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는 사업비 약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중 일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우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



부산항여객터미널 전경.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가 기반의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 및 현장 개선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화 교육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연계해, 지역중소기업에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올해 상생협력사업의 첫 단계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 4월 협의체 참여기업 사업장을 찾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매월 개최로 정례화 되는 협의체 회의에는, 참여기업과 모기업인 공사의 연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안전보건 활동과제 및 추진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부산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BPA는 공사 본사 및 부산항국제전사컨벤션센터에서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번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1200여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결과 교차검증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을 심층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약 25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예년의 자체 조사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결과도출이 기대된다고 공사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한전기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공략

LS전선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MOU

한국전력기술과 LS전선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동맹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한전기술은 지난 11일 LS전선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패키지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케이블 시스템 설계 최적화 및 안전성 검토 등 초기 엔지니어링 ▲전력 계통 최적화 및 통합 설계·조달·시공(EPC) 일괄 수행(Turn-key) ▲스마트 운영·유지보수(Smart O&M)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역량을 결합하기로 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 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연안을 넘어 심해로 입지를 확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

류와 파도 등 복잡한 심해 환경을 견뎌내는 '다이나믹 케이블' 등 고난도 부유식 설계 기술 확보가 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협력은 양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 100MW급 제주함평 해상풍력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EPC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다이나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한 LS전선의 기술력이 더해져 전력계통과 케이블 시스템의 통합 설계 및 최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사는 부유식 설계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는 한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최소화한 '원스톱 패키지'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대상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유관 기관 및 금융권과 손잡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코트라,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무보와 하나은행은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에 수출보험·보증과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코트라가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의 금융 수요를 조사하고, 무보와 하나은행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보험·보증 및 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다.

무보는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보증·보험료를 1년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한다.



장진욱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맨 오른쪽)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강상업 코트라 부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담당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또 참여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사업 참여 기업들은 금융 비용 부담 없이 수출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 확대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부발전과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
매립가스 발전·폐기물 자원화 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손잡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한국중부발전과 '매립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2일 공사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제 탄소감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50MW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과 다양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자원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송병익(오른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지난 30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몽골과 파나마, 볼리비아, 말레이시아, 가나 등 아시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부발전은 우수한 글로벌 에너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매립가스 활용 발전사업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파리협정에 따른 해외 배출권을 확보하

고,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산업 협력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환경기술과 에너지산업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가나 아디파와 오티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발전, 기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가 축적한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중부발전의 에너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감축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국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축 방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비·청년창업 활력

가맹점 수 두 달 새 13.1%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소비와 청년창업 등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시범사업 지역 내 가맹점 수는 올해 1월 말에 비해 13.1% 늘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 쿠폰이 약 2개월 만에 85%가 사용됐다.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촌지역 내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롭게 들어서며 주민 편의가 개선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반

려동물 용품점을 개업했고,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는 헬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또 연천군 백학면에는 자체 차량을 운행해 고령 주민 이동을 지원하는 미용실이 개업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의 푸드코트가 들어섰고, 경북 영양군의 한 카페에서는 기본소득을 활용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전북 순창군 풍산면의 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모바일플랫폼 '온라인장바구니마켓'을 운영하며 유통비용 절감에 나섰다.

/세종=김연세 기자